

일과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자!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8월 1일까지 참가팀 모집
사회문제를 혁신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하는 벤처대회

일과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청년들의 도전이 시작된다. 2022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참가팀을 8월 1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는 사회문제를 혁신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하는 벤처대회다. 청년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마음껏 믿음과 비전을 펼쳐나가는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다.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에는 법인 설립 3년 미만의 혁신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들이 지원할 수 있다(비영리법인 가능). 팀의 핵심멤버 1명은 반드시 기독교인이어야 한다. 8월 1일까지 접수된 팀 중에서 24팀을 선정해 대면 심사를 하고, 12팀을 선발해 본선이 치러진다. 9월부터 3개월 동안 멘토링, 워크숍 등을 거쳐 올해 12월 최종 결선이 있을 예정이다.

수상팀에게는 3천만 원 상당의 상금, 미국 탐방(코로나19로 변경 가능), 크리스천 CEO 리더십 스쿨 전액 장학금 등이 수여된다. 참여팀에게는 밀착 멘토링, 임팩트 펀드 우선 검토 기회, MYSC 엑셀레이팅 프로그램 연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로 8회차를 맞고 있는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는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가 주관하는 청년벤처대회에서 국내 24개 기업과 50여 명의 크리스천 전문가들이 동역하는 벤처대회로 거듭났다. 다음은 2022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대회장 강상훈 장로(OCC공동체)와의 일문 일답.



강상훈 장로

어!벤처스
도전하라! 영웅들이여!

2022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는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청년을 위한 벤처대회입니다.

모집 대상	주요 일정	지원 방법
법인 설립 3년 미만의 혁신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 *지원자격: 18세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독교인이거나 해외에서 활동 중인 기독교인이거나 해외에서 활동 중인 기독교인이거나 해외에서 활동 중인 기독교인	모집 및 서류 접수: 7.8(금)~8.1(토) 14시 심사 및 선발: 8.2(토)~8.12(토) 오리엔테이션: 8.25(토) 제1차 심사: 9월~11월 중간 평가: 10.14(토) 최종결선대회: 12.3(토)	*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네이버 공식 블로그 접속 * 모집 공고글의 지침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공고글 내 '지원하기' 링크를 통해 상문 작성 후 제출 * 해당 대회에 응모할 팀의 대표자 정보 (이메일, 연락처 등)를 꼭 기재해주세요

참여 혜택	수상 혜택	온라인 사전 설명회
* 우수 창업자에게 후원금 지원 * 임팩트 펀드 우선 검토 기회 부여 * MYSC 엑셀레이팅 프로그램 연계 * 비즈니스 리더십의 3개월 밀착 멘토링 * 어!벤처스 알파나 이 벨로우십 제공	* 총 상금 3,000만원 (다양한 1,000만원) * 크리스천 CEO 리더십 스쿨 전액 장학금 지원 * 국내외 유명 기업에 취업 기회 제공 * 크리스천 CEO 리더십 스쿨 전액 장학금 지원	일시: 7.17(토) 17:00 ~ 19:00 대상: 어!벤처스 지원에 관심있는 누구나 신청: 주최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 * 7.6(수)까지

모집 기간: 2022. 07. 08 (금) ~ 08. 01 (토) 오후 2시까지
문의: 어!벤처스 운영사무국 | ventureworld@gmail.com | 카카오톡 채널 '어!벤처스'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과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청년들과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크리스천 멘토들이 함께하는 멘토링이 2022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의 핵심이자 특징입니다. 2022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에 참가하는 청년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실제 그 길에 도전하게 됩니다.”

심사 주관점이 무엇입니까?

“청년들이 사회문제의 극복을 위해서 얼마나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가에 심사 주관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팀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줄 것입니다. 단순한 기부나 후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에게 독려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N포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힘든 시대를 사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특히 불확실한 창업의 길을 걸어가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2022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가 청년기업가들에게 든든한 지원자이자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합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하용조 목사 소천 11주기 추모예배

8월 2일 오전 11시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 목사 소천 11주기 추모예배를 8월 2일(화) 오전 11시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 목사 기념채플에서 드린다. 소천 11주기 추모예배는 하용조 목사의 가족과 교회 리더십 중심으로 드린다. 설교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할 예정이다. 추모예배 상황을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한다.

8월 1일(월)부터 5일(금)까지를 '하용조 목사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캠퍼스 새벽기도회에서는 하용조 목사가 생전에 사도행전 말씀으로 설교한 영상이 상영된다.

하용조 목사는 1946년 9월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태어났다. 1974년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신학 공부(M.Div), 1976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76년 한국 교회 최초 연예인교회 개척, 1980년 12월 두란노서원 창립, 1985년 10월 온누리교회를 세웠다. 'Acts29비전' 선포, 일본 문화전도집회 '리브소나타', NGO 더 멋진세상 창립 등 평생 선교에 헌신했다. 저서로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목숨을 건 일본사랑 리브소나타> 등 90여 권이 있다. 2011년 8월 2일 향년 65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겼다. / 정현주 기자

긴급기도요청

뇌출혈 투병 중인 조문숙 선교사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조문숙 선교사(분당A공동체, 69세)에게 뇌출혈이 발생해 투병 중이다. 조문숙 선교사는 지난 6월 8일(수) 뇌출혈이 발생해 현지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았다.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자각에 반응하는 등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

온누리교회와 두란노해외선교회(TIM)에서는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 조문숙 선교사를 에어엠블런스를 이용해 16일 오전에 한국으로 후송했다. 조문숙 선교사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 받을 예정이다.

조문숙 선교사는 온누리교회 권사다. 와이미선팀과 온누리M센터를 섬기면서 64세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지난 2016년 온누리장기선교사훈련(OSOM)을 받고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파송됐다. 조문숙 선교사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이쿠리리 지역에서 교회개척, 사역자 양성, 우물 파기, 구제 사역 등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었다. <관련기사 13면>

저출산 문제, 교회가 나선다!

온누리미래성장위원회 아이디어 공모

온누리교회가 저출산 문제 극복에 나선다. 온누리교회 당회 소속 '온누리미래성장위원회'가 그 선봉에 선다. 온누리미래성장위원회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 문제 TF(Task Force)'를 구성하고, 교회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출산율을 높이려면 어떤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등 평소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보내면 된다.

관련 직종에 있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 계획이 있는 여성, 자녀 돌봄과 교육을 담당하는 주부, 결혼과 출산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와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이메일(onnuri.fgc@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성도들이 보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올해 8월까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교회적 실천방안 논의 및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6면>

문의: 010-3793-2489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맛있는 말씀 해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마 18:20)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모임에서 혹은 교제하는 중에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이 말씀을 공동체의 규모가 작거나 소수의 구성원일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라면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그 모임과 공동체를 축복할 때 사용하곤 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정말 그러한 맥락에서 주신 것일까? 이 말씀이 등장하는 마태복음 18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 의미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 구절은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범죄와 용서에 대한 훈육 상황을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이다(마 18:15~20). 예수님은 죄를 짓고 서로 갈등 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가르쳐주셨는데, 죄로 인하여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취해야 할 실제적인 단계를 열거하셨다.

첫째, 만일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다면 그당사자하고만 권면해서 화해를 도모하라는 것

이다(마 18:15).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용서와 화해의 첫째 방법은 개인적이고, 은밀한 권고에 있다. 이렇게 하면 당사자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화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인적인 권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용서와 화해의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두세 명의 증인을 개입시켜서 해결하라는 것이다(마 18:16). 이것은 범죄한 형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라는 의미로 주어졌다.

셋째,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교회의 권위로써 해결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를 불신자와 같이 여기라고 선언하셨다(마 18:17). 예수님은 죄 문제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교회에 맡기셨다. 곧 ‘때고 푸는’ 신적 권위가 교회에 주어졌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확신을 주신 것이다(마 18:18).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은 범죄한 사람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문제, 나아가 교회의 합법적인

권징에 대한 맥락에서 등장했다. 예수님은 범죄한 사람에 대하여 교회가 어떠한 결정을 이루고자 할 때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19절)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기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죄의 문제, 화해 혹은 징계의 문제라는 어려운 일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구하는 교회가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진정한 맥락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함께 있을 거라는 약속이다.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자리와 때로는 안타까울지라도 징계를 선언하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징벌이 아닌 화해에 있다. 이 구절 단락 전후에 일관성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뜻을 보여준 ‘잃어버린 양의 비유’ (마 18:12~14) 바로 뒤에 이어지고,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일백 데나

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 징계를 받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 (마 18:21~35) 바로 앞에 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누군가 죄를 지었거나 혹은 그릇된 길로 가버린 사람에 대한 ‘용서와 화해’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그렇지만 누군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일반적인 예배 모임이나 기도 모임, 친교의 자리에서 사용한다면 그것을 굳이 틀린 적용이라고 지적할 필요는 없어보인다. 다만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공동체 사이에 놓여 있는 죄와 범죄에 대해 더욱 간절한 청산을 소망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더욱 성숙한 화해를 이루려는 소망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끝없는 용서와 온전한 화해를 이루는 모임에 함께 하신다.



이해영 목사
(남양주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 (preview)

교회의 순수성과 연합을 위한 권면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고린도후서 6:14~9:15)

목상포인트

1: 성도가 불신자와 깊이 교제하면서 세상 문화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고

린도 성도 중에 불신자들과 어울리며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이들이 있었다(고전 8장). 이에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과 무분별한 교제를 경계한다. 교회의 순수성 유지를 위한 바울의 권면을 들어 보자.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고 경고한다. 성도와 불신자의 관계는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과 같이 결코 조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바울은 교회의 순수성 유지를 위해 불신자와 분리를 강조한다. 성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목상포인트 2: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기 죄를 깨닫고 하는 근심으로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한

다. 고린도 성도들은 죄를 깨닫고 잠시 근심했으나 결국 회개에 이른다. 본문을 통해 때때로 ‘책망과 근심’, ‘회개와 성숙’ 과정을 거치는 사역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어’ 자신을 영접하라고 권면한다. 거짓 교사들의 이간질로 인해 오해가 생겼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이 불의하지 않은 사역자임을 거듭 변호한다. 한편 고린도교회에 파송했던 디도가 돌아와 전해 준 소식은 바울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 바울이 이전에 보낸 ‘책망의 편지’로 인해 성도들이 근심했는데, 그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기에 ‘회개’라는 좋은 결과에 이르렀다. 고린도 성도들이 디도를 환대하고 신뢰한 것은 곧 바울을 환대하고 신뢰한 것과 다름없기에 기뻐한다.

목상포인트 3: 주후 46년 시작된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많은 성도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바울은 이방 교회 성도들의 연보(헌금)를 모아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다. 바울은 연보를 ‘봉사의 직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연보가 ‘예배’ 행위임을 의미한다. 연보의 유익과 연보의 방법, 그리고 바울 당시 연보의 의미를 살펴보자.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 곧 연보에 관해 교훈한다. 연보의 본보기가 되는 마게도냐 교회들은 큰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힘에 지나도록 연보했다. 연보는 고린도 성도들이 먼저 시작했는데,

거짓 교사들의 방해로 중단되었다. 바울은 중단한 연보를 다시 시행하라고 권면한다. 그는 선한 일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직접 연보 모금에 나서지 않고 디도와 함께 검증된 형제들을 보낸다. 연보는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 줌으로써 모두가 균등하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연보를 할 때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자원해서 즐겁게’ 해야 한다. 고린도 성도들의 연보는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순종한다는 증거가 된다. 연보를 받는 예루살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게 된다.

-적용을 위한 가이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나 자신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자. 영적, 육적으로 믿음의 순수성을 흐리게 하는 일이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자.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은 필요한 근심이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우치실 때마다 잠시 근심하겠지만, 즉시 회개하고 돌아키자. ▶하나님은 ‘물질로 섬기는 봉사’를 예배로 여기신다. 중단했던 구제헌금이나 선교헌금이 있다면 다시 시행하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오해가 없도록 조심할 일은 없는지 살피고, 특히 재정 문제는 항상 떳떳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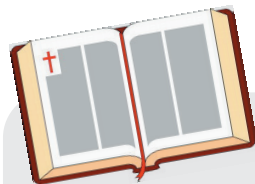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믿음을 위해서!

믿음이가 ‘크라베’라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크라베는 ‘GALC’이라는 효소가 부족해서 지방이 축적되는 질환으로 근육 강직과 경련이 오고, 온몸의 감각과 기능이 퇴화해서 사망하는 병입니다.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방법이 없고, 보통 만 2세 전에 떠난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여러 번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붙들었고, 크신 은혜로 어느덧 6살이 되었습니다.

믿음이는 눈 맞춤이 어렵고 목을 가누지 못합니다. 빛을 잘 느끼지 못하고, 소리에 대한 반응도 적어졌습니다. 위루관으로 음식을 섭취하고, 침 때문에 사레가 걸리기도 합니다. 지금 모습은 이렇지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말 4:2)’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믿음에게 가득 비취주시기를 기도해주시십시오. 믿음이가 일어나 웃고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반드시 오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아브라함이 백 세가 되었을 때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견고히 나아갔던 것처럼, 그 믿음이 우리 가족에게도 부여지기를 기도해주시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를 심으며, 정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 김빛나 성도(강동온누리교회)



주일강단



노치형 목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는 베드로가 고백했고, 우리가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 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더 큰 희망이 생겼고,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구원받은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거짓에 매어 있고, 흔들리고, 고민하고, 낙망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자라서 죄악으로 가고, 죄악 된 세상을 바뀌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을 만납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그것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고,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의 위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기득권을 취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두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네 가지 이유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두시기 위해서입니

다.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 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문제의 핵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곳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욱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쉽게 절망하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숨기려고 합니다. 숨기고자 하는 마음은 상처 때문에 생겼습니 다. 마음이 쉽게 상처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바르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유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수치심’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 잘못된 수치심을 가졌습니다. 육체적인 노출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는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가인의 ‘잘못된 인정 욕구’입니다. 가인의 잘못된 인정 욕구는 하나님이 한 번 자신의 예배를 거절했다고 해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예배는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의 거절이 가인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셋째, 사울의 ‘억압된 기억들’입니다. 사탄은 사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 다. 넷째, 요나의 ‘상한 감정들’입니다. 하나님이 본인이 원하는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감정이 상한 것입니다. 다섯째, 38년 된 병자의 ‘일그러진 자화상’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모든 희망과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도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섯째, 가롯 유다의 ‘과중한 책임감’입니다. 유다의 리더들이 예수님을 잡자마자 가롯 유다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관심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순간의 성취가 절망의 공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책임감이 겹치고 또 겹치다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바르게 풀지 못하면 결국 분노로 가게 됩니다. 분노는 결국 폭력으로 이어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히 12:2).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셨습니다(마 3:17, 17:5). 예수님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일이 많은 적든,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온전한 치유를 체험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태아에게까지 침투해 있는
죄악의 영향력을 정결하게 해주시려고

둘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태아에게까지 침투해 있는 죄악의 영향력을 정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죽음의 결과가 죄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침투력이 태아에게까지 간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거짓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거짓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녀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거짓, 죄악, 죽음의 침투력이 태아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태아로 오셨고, 태아로 죽는 아이까지 죄와 거짓과 죽음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아까지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생명과 죽음의 무한 반복의 허무함을
완전하게 끊어 버리기 위해서

셋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과 죽음의 무한 반복의 허무함을 완전하게 끊어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낫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여기서 ‘멸망한다’는 것은 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과 생명을 반복하는 허무의 공허함을 완전

하게 끊어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부활 생명의 탈출구 알려주시기 위해서

넷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부활 생명의 탈출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활 생명은 죽음의 세력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탈출구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부활 생명만이 탈출구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만이 마지막의 아름다움을 예수님과 함께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빌 2:9-11).

부활의 탈출구는 우리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거짓과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의 위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자”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태아 때부터 영향력을 받고 있던 거짓과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탈출구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증거할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갈라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된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맡았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가 우리의 사랑이심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기쁨으로 안내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목사와 함께 떠나는 선교 여행

울릉도의 100년 된 네 형제 교회



이세영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나우리트릿 대표)

친구들! 오징어, 멍이나물, 호박엿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나요? 이번에 소개하고 싶은 섬은 바로 울릉도예요. 울릉도는 익숙한 지명이고, 왠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울릉도를 가본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해요. 또 울릉도에 대해서 생각보다 아는 게 별로 없기도 하고요.

울릉도는 우리나라에서 9번째로 큰 섬이에요. 군 단위 중에서 가장 적은 인구

가 살고 있어요. 주민이 9천 명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인구는 적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매년 4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 있는 관광명소예요. 하지만 3시간 넘게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어려움(벚멀미)과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 상황에 따라 배의 출항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정 잡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의 용기와 시간적 여유가 아니고서는 쉽게 찾지 못하는 섬이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신비한 섬, 울릉도’가 된 것 아닐까요?

이제는 승객 1,200명, 자동차 200대를 싣을 수 있는 대형 카페리의 운항으로 벚멀미와 일정변경에 대한 염려가 줄면서 울릉도를 오갈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울릉도가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섬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 목사님이 울릉도 섬교회 나들이를 다녀왔어요. 저와 함께 울릉도 섬교회 나들이를 떠나볼까요?

울릉도에는 언제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또 얼마만큼의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습디다”라고 고백하며 주일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까요? 울릉도는 100여 년 전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지금은 경북에서 복음화율(30%)이 가장 높은 섬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울릉도에 대해 조금은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울릉도에 있는 네 형제 교회는 100년 전 설립된 침례교회 네 곳을 목사님이 부르기 편하게 붙인 이름이에요. 이들 교회는 울릉도의 동서남북을 담당하며, 울릉도 사람들의 친구로 100년을 견뎌왔어요. 항구가 있는 지형조차 경사진 곳이 울릉도인데 항구 외의 지역들은 오죽할까요? 가파른 경사와 높은 지대가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이고

신비로운 광경으로 인식되어 ‘뷰 맛집’이라는 이름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100년 전에도 그랬을까요?

100년 전, 누군가 ‘만민도흔기별’이라는 전도용 소책자가 담긴 봇짐을 어깨에 메고 이미 거칠어진 두 손으로 길을 막는 풀들을 헤치며 보통 사람들의 출입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가파른 산등성들을 힘겹게 올랐어요. 그들은 겨우 보이는 몇 채의 집에서 녹록지 않은 일상을 겨우 살아내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 생명을 되찾아 살아가게 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신앙의 선배들이었어요. 그들은 울릉도 사람들의 터전 중간 즈음에 자리를 잡고 교회를 세워 그들의 친구로 백 년을 살았어요.

1896년 최인회 형제가 고향 영천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가난으로 울릉도에 입도했어요. 그가 세운 석포교회가 울릉도 교회의 시작이에요. 1905년 김두건 형제의 가정에서 창립한 저동교회, 1910년 최인회 형제의 전도를 받은 강덕삼 형제의 가정에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며 시작한 평리교회, 같은 해 오용천과 감찬규 형제에 의해 전도 및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서달교회가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교회로 울릉도 사람들과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어요.

울릉도의 오래된 교회를 돌아보면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접근하기 쉬운 항구 근처가 아닌 왜 이리 가파르고 높은 산지에 교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숨어 있어요. 당시 울릉도에 급증한 일본인들이 어업 활동이 수월하고, 생활하기가 나은 해안가에 집을 짓고 살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인들이 산골짜기로 내몰려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뿐일까요? 당시는 농부조차 일본인에게 고용된 상황이었기에 대기근과 고리대금의 압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울릉도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알 수 있겠지요? 미래도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소망을 품고 살도록 치료하고, 가르치고, 따뜻하게 안아준 복음이야말로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외형적으로 작고 초라한 교회당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100년의 세월이 담겨 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도 울릉도에 간다면 100년 된 네 형제 교회를 꼭 찾아가 보세요!



울릉도의 100년 된 네 형제 교회(왼쪽부터 서달, 석포, 저동, 평리교회).

우리들 작품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아요. 매일 해야 할 일을 주셔서 감사하고, 할 일을 하는 힘을 주셔서 감사해요.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큐티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누나까지 우리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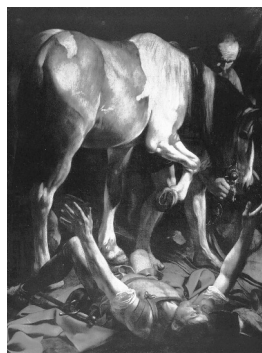
해요. 엄마가 차려주시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또 감사해요.

오늘 하루에만 감사한 일들이 이렇게 가득해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글과 그림으로 옮겨 봤어요.

/ 한해와 어린이(강동온누리교회)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의 좋아요> 7월 13일
본문 '고후 3:1~5'



카라바지의
<바울의 회심>, 1600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되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다

른 교사나 제자들처럼 추천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자신의 추천서이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 ① 고린도교회 사람 ② 빌립보교회 사람
③ 예수님의 열두 제자 ④ 병 고침 받은 사람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천서를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5. 함께라서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아를 돌보셨을 것이다!

자립준비청년과 위기청년 섬기는 ‘선한울타리사역’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면에서는 선택의 순간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묻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성도와 사역팀을 소개한다. 이번에 소개할 주인공은 사회선교부 ‘선한울타리사역팀’이다. 선한울타리사역팀은 자립준비 청년(보호종료아동: 만 18세 되어 보육원을 퇴소하는 청년) 및 가정불화로 인한 위기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자립지원사역을 하고 있다. 주거지원(선한울타리센터), 멘토링, 신앙훈련, 자립 훈련 등의 사역을 통해서 자립준비청년들과 위기청년들이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하도록 돕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뿐인데 비자발적으로 사회에 나가야 하는 청년들이 있다. 자립준비 청년들이다.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자립준비 청년은 ‘보호종료아동’의 새로운 이름이다. 아동양육시설(보육원),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을 말한다.

자립준비 청년(보호종료아동)들은 그 시작부터가 힘들고 버겁다. 시설을 퇴소하면서 소정의 자립정착금을 받는데,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르다. 대략 500만 원 정도다. 그 돈으로 숙소를 마련하고, 살림살이를 구매해야 한다. 정부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자립수당 30만 원을 3년 동안 지원해준다. 지난해부터 5년으로 지원 기간이 연장되었지만 월세와 식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자립준비 청년들이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자립준비 청년들은 의식주가 불안정하다. 학업이나 진학은 꿈꾸기 어렵다. 어린 나이에 사회에 나오면서 어둠의 손길이 내미는 유혹을 뿌리치기도 힘들다. 가장 큰 문제는 정서적 외로움이다. 자립준비 청년들은 힘들고 고민이 생겨도 도움이나 조언을 구할 믿을 만한 어른이 없다. 한 해 평균 자립준비 청년 2,500명이 준비되지 못한 채 사회로 떠밀려 나오고 있다.

사회선교부 선한울타리사역팀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딱한 사정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2020년 제이흙(온누리교회 입양위탁가정 커뮤니티)을 주축으로 선한울타리사역팀을 조직했다. 선한울타리사역팀의 첫 사역으로 지난해 3월 용산구 보광동에 숙소를 마련해 여성 자립준비 청년 1명을 지원했다.

올해 선한울타리사역의 지경이 확대됐다. 화곡동에 남성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숙소 ‘선한울타리센터’ (강서구 화곡동)를 오픈했다. 화곡동 선한울타리센터에는 자립준비 청년, 가정불화로 길거리에 내몰린 위기청년 등 도움이 필요한 청년 5명이 입주했다.

선한울타리센터 무상임대한 김을형 집사

화곡동 선한울타리센터가 개소할 수 있었던 것은 김을형 집사의 헌신 덕분이다. 선한울타리센터 건물을 김을형 집사가 제공했다(5년 무상임대). 김을형 집사는 선한울타리사역에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며 자신의 소유 건물(다가구주택)을 흔쾌히 쾌적했다. 건물 리모델링 비용 총 1억5천만 원 중에서 1억2천만 원도 부담했다. 김을형 집사는 정말 겸손했다. 오히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에게서 작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고 기쁩니다.”

김을형 집사는 오랜 기간 주재원으로 일했다. 1987년 대기업에 입사한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6년, 미국에서 8년, 동티모르에서 2년을 지냈다. 김을형 집사의 어머니는 아들이 타국에서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한국에 작은 건물을 지었다. 바로 그 건물을 선한울타리센터로 무상임대했다. 사실 김을형 집사의 기부 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모교(대학교)에도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 김을형 집사가 기부 활동을 이어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제가 돈을 벌고 재산을 불리게 된 경위를 보면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고백밖에 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돌아켜봐도 제 능력으로는 재산을 모을 수 없었습니다. 돈이 선한 쪽으로 흘러가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주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맡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깝다고 여기지 않고 기부할 수 있습니다. 선한울타리사역에 기부한 이유는 이제 만 18세밖에 되지 않은 청년들에게 스스로 살라고 등 떠미는 것은 그들을 두 번 버리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김을형 집사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생활하게 된 청년들에게 따뜻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배고파 봐야 배부름의 감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처지를 비관해서 주저앉지 말고, 남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만 18세 청년들은 아직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

조희망 형제(가명, 만 24세)가 화곡동 선한울타리센터에 입주했다. 조희망 형제는 스무 살



선한울타리사역팀에서 남성 자립준비청년과 위기청년들의 보금자리인 선한울타리센터를 오픈했다.

이 되자마자 집을 나왔다. 새아버지와 어머니, 형과 누나와 함께 살았는데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새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했습니다. 형과 누나도 많이 때렸고요. 매 맞는 어머니를 보면서 새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커졌습니다. 불안정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희망 형제의 3남매 모두 불안하고 불행한 시절을 보냈다. 친형과 누나는 일찌감치 가출했다가 여러 범죄와 사고에 연루돼 소년원에 갔다. 그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형은 교도소에, 누나는 결혼해 아이를 둘 낳았는데 얼마 못 살고 이혼했다. 조희망 형제는 고등학교 때부터 오토바이 배달과 공사장에서 막일 하면서 모은 돈을 들고 가출했다. 친구 집에서 지내기도 하고, 운 좋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LH 임대주택에 들어간 같은 처지의 친구에게 몸을 잠시 의탁하기도 했다. 친구와 함께 빌라를 임대해서 살기도 했다. 그러다 문제가 터졌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보증금 한 푼 못 받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그에게 선한울타리사역팀과의 만남은 기적 그 자체였다. 하나님이 주신 보금자리가 틀림없다. 조희망 형제가 선한울타리사역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곳저곳 전전하면서 몸도 마음도 정말 힘

들었습니다. 새아버지 원망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는 부모가 있는데도 고아처럼 지냈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온누리교회와 선한울타리사역팀 덕분에 마음 편히 지낼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선한울타리센터에 입주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가 해결되어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지금 신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새 보금자리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혹자는 만 18세면 다 큰 성인인데 왜 도와줘야 하느냐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 18세는 다 큰 성인이 아니다.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할 나이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만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간주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만 19세 이상, 선거법은 만 20세부터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 18세는 미성년이다. 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하도록 교회가 끝까지 도와야 한다. 예수님이라면 그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시 68:5).

문의: 사회선교부 02-3215-3434, 3436
후원: 온누리교회-선한울타리
하나은행 573-910020-36505

교회가 저출산 해법에 앞장서면 희망이 있다

이재규 장로가 제안하는 인구 절벽 문제와 대응책 ... ‘출산의 방주를 타자!’



이재규 장로
(동대문중랑공동체,
KAIST 명예교수)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차원 뿐만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도 심각하다. 지난 10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0.81까지 줄어만 간다. 이는 일

시적 현상이 아닌 것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불과 50년 전 인구폭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산아제한을 했던 우리나라가 인구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노력을 재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교회와 성도가 앞장서서 해결하여 나라를 지키고 교회도 지켜야 할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

해법은 단순하지 않다. 그러나 세 가지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접근하면 해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첫째는 결혼과 출산에 관한 세계관을 정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더 효과적인 국가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고, 셋째는 교회가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계관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1.0에도 못 미친다. 한 부모에게서 한 명의 자녀도 태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 기독교인의 출산율을 1.0, 2.0, 2.5로 가정하고, 비기독교 국민의 출산율은 1.0이라고 가정한 시나리오로 미래를 단순계산으로 추정해 보자.

기독교인의 출산율이 1.0이라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인구도, 교회 성도도 세대당 절반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줄어서 나라와 교회가 모두 소멸된다. 현재 5천만 대한민국 인구의 20%가 기독교인 것으로 가정하면 3세대를 지난 100년 후 나라 전체 인구 625만 명이 되고, 기독교인은 125만 명으로 줄어들고 200년 후면 전체 인구 78만 명, 기독교인 15.6만 명으로 줄어든다. 상상조차 하기 두려운 멸종의 길이다.

기독교인의 출산율이 2.0으로 가정하면, 출산율 1.0인 비기독교 인구는 100년 후 500만, 200년 후 62.5만 명으로 줄어들지만, 기독교인의 수는 1,000만 명이 유지된다. 기독교인이 인구 비율은 높아지지만, 이 시나리오도 국가의 존립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의 출산율이 2.5라고 가정하면, 비기독교인 인구는 100년 후 500만으로 감소하지만, 기독교인은 1,953만 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200년 후 비기독교인은 62.5만 명

으로 줄어들지만, 기독교인이 3,814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시나리오는 기독교인 출산율에 힘입어 국가의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 이 방안을 실천하기 너무 힘들까? 나라와 교회의 존립을 위한 신앙차원이면 실천 못 할 일도 아닐 것 같다. 지원 정책이 병행되면 더 실현성이 높아질 것이다.

흔히 저출산의 대책으로 이주민을 받아들이야 한다고 한다. 이주민으로 성장한 미국의 예를 들기도 한다. 어느 수준까지는 열린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대륙에서 이주민으로 나라를 설립하는 상황이 아니다. 분별없이 이주민 정책에 의존하는 사고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차원의 대책이 되지 못한다. 그 정도가 지나치면 출산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종교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것과 같게 된다. 유럽을 보면 런던 시장(市長)에 이슬람교도가 선출되는 나라로 변신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고 축복하셨다. 그런데 산아제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사람에게 필요한 도덕성은 무엇인가? 가정이 파괴되고 나

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먼저 학교에서부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교육시켜야 한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애로점(隘路點)을 더 깊이 청취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평가하여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는 역량을 갖춘 연구 및 추진체계를 한국 교회가 수립하여야 한다. 교회만을 위한 것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기도와 지혜 공동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출산, 산후조리, 양육지원, 청년의 첫 번째 주택이나 다자녀 가정 주택 청약우선권 등의 장려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지나침이 없지만, 여기에서 반복하지는 않음은 단순히 제한된 지면 때문이다. 그래서 제한된 지면에 결혼과 출산장려에 상충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을 제안드리고 싶다.

주택 문제 관점에서 볼 때 요즘 청년들이 주택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허다하다. 결혼하면 가구 단위로 부동산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어 결혼하는 것이 불리하다. 결혼한 사람이 적어도 불리하지

두 자녀를 기준으로 저출산한 부모는 그만큼 연금 수령액이 낮아지게 하는 것이 저출산 방지책이 되고 연금 구조를 유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세 자녀 이상 출산한 부모에게는 초과출산에 대한 기여도를 연금수령액에 반영하여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의지와 상관없이 출산이 불가능한 부부에 대한 예외는 세심하게 배려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금문제와 출산문제를 연동하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교회의 역할

교회의 첫 번째 역할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계관의 정립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 교회가 동참하여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 어린이집을 의무화하거나 방과 후 교육을 위해 학교 공간을 활용하듯이, 교회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평일에 교회 시설을 개방해서 어린이 놀이방, 방과 후 교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차세대가 교회를 찾아오고, 교회가 사회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회선교일 것이다. 다음세대의 출산과 양육으로 교회와 나라가 든든해져야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온누리교회에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 교회가 함께 꾸무고 함께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온누리교회가 먼저 그 실험 모델을 만들어 운영하고 확산시키는 단계가 필요할 것이다. 다른 교회의 창의적 노력이 서로 경쟁이 되어 더 효과적으로 확산되더라도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주님의 눈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온누리교회 미래성장위원회에 바란다

온누리교회 미래성장위원회(위원장 김병순 장로)에서 ‘대한민국이 소멸하면, 한국 교회도 소멸한다’는 절박함으로 실행위원회(Task Force)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성도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실천방안을 집단지성으로 발굴하여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저출산 문제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을 비롯해 출산하는 여성, 결혼과 출산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이 특히 많이 참여하여 자신의 문제이자 교회와 나라의 대책을 함께 수립하면 좋겠다. 변함없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간직하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현실에서 닦힌 사회문제 해결의 지혜를 얻기를 기도드린다. 많은 성도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소망한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성도들과 공유하고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한 세계관 정립과 국가 정책 제언과

온누리교회 및 한국 교회 차원의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가 소멸되는데도 개인의 결정권만 중요하다고 방치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두세 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겠는가? 다른 사람들이 출산하지 않을 때, 다른 나라가 출산을 하지 않을 때, 이 지혜를 간직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마치 노아의 방주를 탄 사람들이 되지 않겠는가? 자기 손으로 후손을 소멸시킨 사람들은 대홍수에 빠진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핑계 댈 수 있을까? 이를 위한 기도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 완전한 국가의 정책

저출산 대책을 위한 국가의 정책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식 교육, 결혼과 출산의 장려, 직업과 양육의 조화, 자녀 교육과 주택문제, 결혼한 가구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해소, 인구절벽으로 인한 연금체계 붕괴 방지 등 전주기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단순히 출산과 양육 지원 대책만으로 결실을 거두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금까지의 낮은 정책효과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각 주제에 해당하는 남녀와 연령층이 참여한 대

안거나 유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소득세, 연금제도, 상속세에서도 결혼한 가구, 다자녀 가구가 불리한 점이 없는지 총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연금고갈 문제도 출산장려와 연계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출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전제하에 ‘더 내고 덜 받기’ 식의 연금개혁은 한시적 미봉책에 지나지 않고 후손들은 더 어려운 상황만 반복하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구조가 자신이 납입한 금액(보험료)에 기반하여 연금수령 혜택을 받는 것인데, 출산율이 2.0보다 낮아지거나 고령화로 인해 수명이 길어지면 그 지속성에 불균형이 발생한다. 고령화는 일시적 현상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저출산의 문제는 한차례의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연금가입자의 책임에 미래 자녀의 납입기여도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과거에는 자녀가 노후 부모를 부양하였다. 그런데 두 자녀를 출산한 부모의 연금이 저출산한 다른 가정으로 인해 삭감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 연금 삭감이 목적이 아니지만, 연금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뿐만 아니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화론자 리처드 도킨스 바로 보기

창조의 진리로 도킨스의 논리 파훼(破毀)해야!



이은일 장로
(성북공동체, 고려대 의과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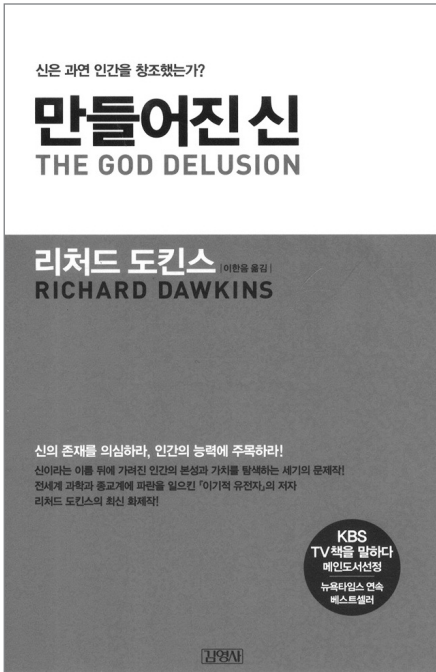
리처드 도킨스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대중의 과학이해를 위한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진화론을 대중에게 전하는 전투적 진화론자로 유명하다. 도킨스가 전투적

진화론자로 불리게 된 것은 기독교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책 <만들어진 신(The God Delusion)>을 2006년 출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후 진화론 진영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 이유는 진화론 진영에서 창조론을 공격하는 주된 방법이 과학과 종교를 분리하는 전략, 즉 창조론은 과학이 아닌 종교이기 때문에 과학의 영역에서 다룰 수 없다는 주변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원의 문제를 다루는 과학에서 초월적인 창조는 아예 과학의 영역이 아니어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주장하는 창조과학이나 초월적 설계자를 주장하는 지적설계 등은 모두 사이비 과학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책 <만들어진 신>은 대중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진화론 진영에서는 과학자가 종교를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주변화 전략을 혼란스럽게 할 우려를 금지 못하고 있다. 과학과 종교를 분리시키지 않고, 과학이 종교를 공격한다면 창조과학이나 지적설계를 과학의 영역에서 종교의 영역으로 퇴출시킨 그간의 노력이 반전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도킨스의 저작(著作)들

이제는 진화론 진영에서도 도킨스를 부담스러워하지만, 그의 <만들어진 신> 이전의 책들은 진화론 진영에 다친 여러 위기를 구원해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다. 리처드 도킨스를 유명하게 만든 첫 번째 책은 1976년 출간된 <이기적 유전자(selfish gene)>이다. 당시 진화론 진영은 1960년대 시작된 창조과학 운동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었다.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도전을 받는 상황에서 1972년 굴드 등이 발표한 단속평형이론으로 화석에 진화의 중간단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위기가 닥친 것이다. 진화론자들은 화석이 아닌 생명과학 영역에서 진화의 증거를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진화론의 증거는 유전자에 있으며, 더는 화석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도킨스가 진화론을 유전자 중심으로 설명하는 대중적인 책을 저술하면서 당시 진화론 진영



이 간과하고 있던 인간 존재의 의미를 ‘유전자’에 부여하기까지 했다. 즉 인간은 유전자를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며, 유전자가 생명체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도킨스의 탁월함은 모든 것을 그럴듯한 진화론 논리로 잘 포장한다는 것이다. 유전자만으로 설명 안 되는 부분을 ‘뭉’이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 문화 영역도 마치 진화가 당연한 것처럼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인간이 단지 DNA를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도킨스의 주장은 지나친 유전자 결정론이라고 많은 과학자가 반대함에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진화론자들은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생명과학 지식이 진화론을 지지한다는 주장은 억지일 뿐이며, 사실상 생명과학의 엄청난 지식은 도리어 진화론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게놈(genome) 프로젝트 이후 엄청난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더욱 확실해졌다. 그런데 이미 1986년 영국의 유전학자이며 무신론자인 마이클 덴튼은 책 <위기의 진화론(Evolution: A Theory in Crisis)>을 통해 진화론의 주장들이 얼마나 잘못된지 큰지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생명과학의 발전이 정교한 생명체의 설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덴튼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창조과학자가 “어떻게 진화되었는데 생명체들이 놀라운 설계를 보여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진화론자들에게 던지고 있었고, 이러한 설계 논쟁은 진화론자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도킨스가 이 상황을 1987년 <눈먼 시계공(The Blind Watchmaker)>이라는 책으로 돌파했다. 이 책은 19세기 신학자 윌리엄 페일리 “정교한 시계를 보면 시계공이 보이지 않아도 시계공이 있음을 알 수 있듯이, 정교하게 설계된 세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시계공(watchmaker) 논증’을 반대로 패러디 한 것이다. 도킨스는

“
많은 사람이 도킨스의
주장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창조의 진리를 알면
도킨스의 논리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

세상이 설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부정하던 진화론의 논리를 버리고, 설계를 인정하는 진화론적 논리를 새로 만든 것이다. 즉 세상이 설계로 가득한 것은 ‘진화의 위대한 과정’이라는 해석을 붙이고, 이러한 진화의 과정을 ‘눈먼 시계공’이라고 표현했다. 설계를 인정하되, 설계가 진화의 과정으로 된 것이라는 억지 해석을 붙인 것뿐이지만, 도킨스의 <눈먼 시계공> 이후 진화론자들은 더는 설계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도킨스는 진화에 의한 설계를 ‘상향적 설계’라고 애매하게 표현하는데, 최근 진화론의 대세는 ‘자기조립(self-assembly)’으로 설계되었다고 주장한다. 자기조립은 나노과학에서 발견한 현상으로 화학반응과 유사한 것이며, 어떤 패턴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자기조립을 통해 복잡하고 정교한 생명체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정보체계가 생성된다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도킨스가 막연한 논리로 진화에 의해 설계가 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미국 버클리 대학의 저명한 법학자 필립 존슨은 도킨스의 책을 읽고 도리어 진화론이 아무런 과학적 증거가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파하였다. 도킨스가 진화론이 과학적 증거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교묘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필립 존슨은 저명한 과학자들이 왜 과학적 증거가 없는 진화론을 그토록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탐구하였고, 그 결과 1991년 유명한 <심판대의 다윈>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지지하는 것은 과학적 증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다윈주의와 자연주의 세계관 때문이라는 것을 폭로한 것이다. 즉 과학은 물질세계만을 다루야 한다는 자연주의를 과학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기원에 관해서도 억지로 적용함으로써 초월적

창조와 그 결과에 의한 질서를 철저히 부인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도킨스의 교묘한 논리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와 <눈먼 시계공>의 출간을 통해 진화론 진영에서 가장 각광받는 스타 과학자가 되었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도 되었다. 그런데 도킨스가 영국 BBC방송에서 종교 특히 기독교의 비과학성과 비도덕성을 공격하고, 그 내용을 2006년 <만들어진 신>으로 출간했다. 도킨스는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구약의 하나님은 어린이들까지도 죽이는 비윤리적인 존재라고 주장했다. 도킨스는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하고, 도리어 인간이 DNA를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진화론을 도덕적이라고 주장한다. 도킨스가 이처럼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유는 당시 지적설계 운동이 미국 전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지적설계 운동은 1996년 마이크 베히의 ‘다윈의 블랙박스’, 1998년 윌리엄 뎀스키의 ‘지적설계 정보이론’ 등으로 이론적 체계를 갖추면서 학술지에 관련 논문이 출간되기도 했다. 미국 여러 지역의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설계이론을 학생들의 교과서에 실어야 한다는 시도들이 많아졌으며, 2006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지적설계론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독교의 하나님 대신 단순히 초월적 존재를 인정하면서 세상과 인간이 우연이 아닌 지적설계의 산물이라는 것은 기독교 진영을 넘어서서 많은 미국인의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킨스가 결정적 한 방으로 창조과학이나 지적설계이론 등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는 책을 출간한 것이다.

이 책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진화론이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 종교를 공격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지적설계 운동도 과학계에서 효과적으로 추방한 상황에서 진화론 진영은 너무 전투적인 도킨스가 더는 필요 없게 되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대중들에게 아직도 막강하다. 그럼에도 진화론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사람들은 도킨스의 주장이 매우 허술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교묘하고, 화려한 언변에도 자신의 핵심적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도킨스의 주장을 따르는 것은 과학적 논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와 그로 인한 창조질서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두움이 깊을수록 빛이 환하게 드러나듯, 창조의 진리를 알면 도킨스의 교묘한 논리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조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도킨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떼는 말이야

성경적 재정 원칙 다섯 가지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돈’에 대한 관심이 많다. ‘부(富)’에 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다. 증권회사에서 34년 동안 근무하다 보니, 주위에 전문가라고 불리는 이들이 많다. 재테크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경제 전문가로 불리며 미래를 예측한다. 그러나 인간 전문가는 불완전하다. 진정한 전문가는 하나님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 성경에는 재정에 관한 지혜의 말씀들이 많이 나온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재정을 잘 활용해야 한다. 성경적인 재정 원칙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딤후 6:10),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골 3:5).

돈은 본질적 가치가 아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한 도구적 가치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마 6:24).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

는 일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내일 일은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마 6:33~34).

둘째,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하라.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일조 생활을 즐겨 한다면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 3:10).

십일조는 ‘첫 열매’를 바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는 자신이 번 돈을 계산하고 허튼 곳에 돈을 쓰지 않고, 반드시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십일조를 드렸다. 그러면 하늘의 밭에서 그 씨앗이 움트고 자라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록펠러 자신에게 넘칠 만큼의 열매로 다시 돌아왔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이 복리로 불러 주신다”고 표현했다.

셋째, 빠르게 돈을 벌려고 하지 마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

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잠 28:20).

급하게 투자를 결정하면 낭패를 볼 것이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중앙은행 기준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활황과 침체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차분하게 그 흐름을 파악하고 기다렸다가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한다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넷째, 빚을 지지 마라.

“빛진 사람은 빚쟁이의 종이 된다”(잠 22:7).

좋은 대상에 투자해서 끝까지 기다리면 부자가 될 기회가 오지만, 빚을 얻어 투자하면 끝까지 기다리기 힘들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나라 정부에 고금리 정책과 한계기업 퇴출을 요구했다. 빚(부채)이 많았던 기업과 재벌 그룹들은 높은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도로 쓰러졌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5).

다섯째, 먼저 주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잠 11:25),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 6:38).

경주 최부잣집 자손들은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다.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주변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등의 가훈을 대를 이어 지켰다. 흥년이 들어 농민들이 빌려 간 쌀을 못 갚게 되자 받아두었던 담보 문서를 모두 없애고 먹을 것을 푸짐하게 나누어 주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주는 삶을 살았기에 300년 12대를 이어서 가문의 부를 유지할 수 있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다. 복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때 하나님은 현세에서 풍족한 축복과 보상을 부어 주신다(막 10:29~30). 많은 선교사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가 오늘날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우리 삶에서도 복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재정의 원칙들을 지켜나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축복을 주실 것이다.



황성룡 장로
(Pole2대학부 대표멘토, 강남A공동체)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결혼 서약은 꼭 지켜져야 한다!

결혼식의 모든 순서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혼인 서약이다. 신랑과 신부는 평생 서로 섬기며 사랑할 것을 많은 증인 앞에서 자신의 입술로 선포한다. 주례자의 질문과 신랑 신부의 대답, 많은 증인이 함께함으로써 그 혼인 서약이 효력을 갖게 된다. 주례자는 신랑 신부가 혼인 서약에 동의하는 것을 듣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 됨을 선포한다. 예식장에 들어서기 전에는 둘이었지만, 혼인 서약하고 퇴장할 때는 하나가 된다.

결혼 서약은 언약의 의미다. 언약은 당사자들 간의 절대적이고, 파기할 수 없는 협정이다. 언약을 지키면 서로에게 큰 축복과 유익이 되지만,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가가 매우 크다. 고대에서는 중요한 협정을 맺을 때 동물의 사체를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기도 했다. 서로 돌이킬 수 없으며 파기했을 때는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겠다고 다짐했다. 신랑과 신부는 평생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다짐한다. 결혼식에 입장하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에는 ‘그 어떤 인생의 폭풍이 오더라도 신성한 결혼 서약을 파기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당당함이 묻어 있다.

그런데 굳게 다짐했던 결혼 서약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한다. 일평생 이 사람만을 섬기며 사랑하겠다고 했고, 매일 사랑한다는 말을 아침저녁으로 하겠다는 서약에 자신의 의지를 담았지만, 예상하지 못

했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는 서약을 깨지도 모르는 유혹의 파도가 덮치는 혼돈스러운 경험도 한다. 결혼 서약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본다면, ‘나는 상대방에게 속해 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이성과의 특별한 관계를 포기한다’, ‘다른 이성과의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겠다’, ‘다른 이성과의 정서적 친밀감을 즐기지 않겠다’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결혼 서약은 절대성과 배타성이 포함된 관계의 맹세라고 할 수 있다. ‘한 사람만 보겠다’, ‘이 사람만 사랑하겠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겠다’, ‘다른 이성과의 성적, 정서적 쾌락을 즐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혼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적 각성과 기억이 필요하다. 구약에서 절기와 언약을 정기적으로 지켜졌던 것처럼 결혼 서약도 정기적으로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부부는 매년 결혼기념일을 의미 있게 보낼 필요가 있다.

결혼의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부부는 시야를 좁게 가질 필요가 있다. 남녀의 사이는 원래부터 위험한 관계라는 견해가 있다. 어디에서 관계의 화학적 폭발이 일어날지 모르는 관계가 남녀의 관계라고 보는 것이다. 결혼 서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 이성과의 관계 폭을 좁히는 것이다. 관계의 폭을 좁히는 의미에는 대인관계에서 이성과 유지해야 할 거리가 있음을 기

억하는 것이 포함된다. 대인관계의 거리에는 물리적인 거리와 심리적인 거리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유지하는 거리가 있다. 편안함을 유지하면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거리를 1미터 정도로 본다. 조금 더 친한 관계라면 그 거리가 줄어들 것이다. 격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거리가 필요하다.

부부의 관계에서는 거리가 의미 없을 정도로 가까워진다.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에 순종할 만큼 거리가 없는 관계가 부부다. 결혼 서약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겠다는 맹세는 오직 배우자와만 육체적 거리가 없는 관계를 갖겠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다른 이성과의 관계에서 물리적 거리가 무너지면 멈춰야 한다. 결혼 서약을 하면서 “나는 나의 배우자와만 물리적 거리 없이 하나가 된 존재로 살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다른 이성이 자신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허물려고 하면 멈추는 것이 서약한 자로서 지켜야 할 행동이다.

육체적인 거리뿐 아니라 심리·정서적인 거리와 내용도 지켜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으면 외도라고 하고, 정서적인 친밀 경험 정도는 외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반면 육체적 관계는 당연히 외도로 보고, 정서적으로 친밀함을 경험한 관계,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음을 건넌’ 정도의 관계도 외도로 구분하기도 한다. 두 번째 구분을 더 많은 사

람이 외도로 분류할 것이다. 육체적인 것도 중요하고, 심리·정서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혼 서약을 한 부부라면 타인과의 심리·정서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부부와 나눌 수 없는 마음과 감정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성이 있다면 이미 정서적인 거리가 허물어진 거라고 볼 수 있다. 정서적인 온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 경험하는 감사와 따뜻함을 넘어서는 관계의 온기를 경험하는 관계라면 멈춰야 한다. 결혼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과의 육체적인 거리는 물론이고, 심리·정서적인 거리 유지가 필요하다.

결혼 서약에는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는 적극적인 맹세가 나타난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경고성 내용이 더 많다고 느낄 수 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금해야 하는 규칙들이 속박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럼에도 결혼 서약은 꼭 지켜져야 한다. 언약을 지키면 축복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대가가 따른다. 결혼 서약을 지키므로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말 2:14).



황국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꼭 봐야 할 영화 ‘브로커’

“태어나줘서 고마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 송강호, 강동원, 이지은, 배두나 출연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로 유명한 세계적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한국 배우들과 손잡고 영화를 만들었다. 그 영화 제목이 ‘브로커’다. 제목만 보면 스릴러 영화 같은데 아니다. 가족 영화다.

그것도 아주 색다른 가족 영화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들이 한 가족으로 변화되는 여정을 그렸다.

영화 줄거리는 이렇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상현(송강호)과 베이비박스 시설에서 일하는 동수(강동원)는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기를 빼돌려 입양이 곤란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브로커다. 어느 비 오는 날 베이비박스에 누군가 아기를 놓고 갔다. 아기의 품에는 한 장의 쪽지만 달랑 있다.

“우성이 미안해, 꼭 데리러 올게.” 상현과 동수가 그 아기를 몰래 빼돌린다. 그 다음날 문제가 터진다. 상현과 동수가 몰래 빼돌린 아이의 친엄마 소영(이지은)이 베이비박스 시설을 찾아온 것. 자신의 아기가 사라진 것을 안 소영이 경찰에 신고하려던 찰나 상현과 동수가 허울 좋은 말로 둘러댄다.

“우리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고, 입양 심사 기간을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부모의 품에 선아 씨(소영이 거짓으로 낸 이름)의 소중한 아기를 안겨드리는 큐피드다.”

상현과 동수의 변명이 어이없지만, 소영은 아기의 새 부모를 찾는 과정에 함께 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렇게 그들의 수상한 동행이 시작된다.

이 모든 과정을 수진(배두나)과 이 형사(이주영)가 지켜본다. 브로커 일당을 현행범으로 잡기 위해 수상한 여정을 뒤쫓는다. 우성이 좋은 부모 품에 안기려는 두 브로커와 미혼모 소영이는 과연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수진과 이 형사는 브로커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을까?

영화 ‘브로커’에는 세 가지 박스(Box)가 있다. 고레에다 감독은 “영화를 관통하는 첫 번째 박스는 소영이가 아기를 두고 가는 베이비박스이고, 두 번째 박스는 브로커 일행과 형사들이 타고 있는 차량이다. 세 번째 가장 큰 박스는 인물들이 선과 악의 경계를 넘나들 수밖에 없게 하는 우리 사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감독의 말대로 영화 ‘브로커’를 보는 내내 이 세 가지 박스가 눈에 들어온다. 베이비박스의 아기를 빼돌려 불법매매 하는 상현과 동수, 불법 사이트에서 아기를 사려는 부모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입양 특례법의 폐해와 문제점도 찾아볼 수 있다. 승합차에서 브로커와 소영이 나누는 대화와 이들을 뒤쫓는 수진과 이 형사가 차에서 나

누는 대사들에서는 그들의 솔직한 인간 군상이 엿보인다. 상현과 동수, 소영, 수진과 이 형사 캐릭터에서 나타나는 선악의 공존도 살펴볼 수 있다. 누구 하나 심성이 악한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마냥 선하지도 않다.

한 번쯤 볼만한 영화가 틀림없다. 선악의 공존을 특유의 자연스러운 말투와 태도로 연기한 송강호의 연기가 돋보인다. 가수이자 배우 이지은은 애틋하고 날 선 미혼모의 심정 변화를 잘 연기해냈다. 배두나와 강동원도 과장되지 않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연기를 선보인다. 영화 중간중간 보이는 카메라 오들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다.

아이를 입양 보낼 생각에 정을 주지 않는 소영에게 상현이 이렇게 말한다.

“(입양)가기 전에 ‘태어나줘서 고마워’라고 말해주는 게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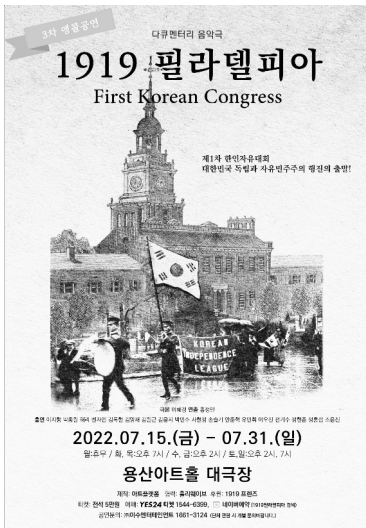
이 말은 입양 갈 아이에게만 필요한 말이 아니다.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는 상현과 동수, 소영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고, 그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다.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말이기도 하다.

시청: CGV, 롯데시네마 상영 중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볼만 한 공연 다큐멘터리 음악극 ‘1919 필라델피아’

대한민국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출발!



이혜경 극본 저 | 홍정민 연출 | 아트플랫폼 제작

다. 이날 결의한 주권재민, 자유민주주의, 여성 참정권이 포함된 보통선거, 합리적인 경제 체제와 무역, 민중의 보건과 교육, 신앙과 표현의 자유 등의 원칙이 약 30년 뒤인 1948년 대한민국 건국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

다큐멘터리 음악극 ‘1919 필라델피아’는 7월 15일(금)부터 30일(토)까지 용산아트홀 대극장에서 막 오른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와 7시에 관람할 수 있다. 월요일은 휴무다. 티켓은 예스24와 네이버예약에서 예매하면 된다. 가격은 전석 5만 원.

문의: 1661-3214

제1차 한인자유대회 회의록을 다큐멘터리 음악극으로 펼쳐낸 ‘1919 필라델피아’ 공연이 한창이다. ‘1919 필라델피아’는 서재필, 이승만, 유일한, 정한경, 민찬호 등 한인 대표 150여 명이 참여한 대한민국 최초 자유민주주의 대회를 공연으로 재구성했다. 당시 의회 진행을 도왔던 유대인 랍비 조지 베네딕트의 개인 회고록과 당시 실제로 불렀던 노래들과 주제곡 등이 더해져 지루할 틈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다.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독립의 산실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한인자유대회(First Korean Congress)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내는 선언문(민찬호 박사), 미국 대중에게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 호소문(이승만 박사), 한국인들의 목표와 열망을 알리는 결의문(유일한 청년), 양식 있는 일본인에게 보내는 서한문(윤병구 청년), 미국 정부와 국제연맹에 보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 요청서(정한경 청년) 등을 작성하고 선언했

신간 소개

사랑의 뜰 안에서



〈사랑의 뜰 안에서〉 김민숙 저 | 좋은땅 | 10,000원

전도하는 시인 김민숙 권사가 4번째 시집을 펴냈다. 김민숙 권사는 전도하면서 받은 은혜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은혜를 시로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랑의 뜰 안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의 뜰 안에(시 92:12~13) 머물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사랑의 뜰 안에서

아픈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부족한 이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외로운 이들의 귓가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소서

그래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소서

어려운 이들을 이끄시어
주님의 날개 아래
친히 품어 주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맞보게 하소서

아웃리치에서 코로나19 감염 주의

방역수칙 지키고, 선교사와 목회자 위로에 중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사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2주째 계속되고 있다. 방역 당국에서는 본격적인 재유행을 우려하고 있다. 본격적인 국내외 아웃리치가 시작된 만큼 온누리교회 성도들도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고려해서 해외 아웃리치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고, 국내 아웃리치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과 무리한 사역보다 선교사와 지역교회 목회자 위로에 중점을 둘 것을 권면하고 있다.

올해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에는 국내 158개 팀, 2,536명, 해외 50개 팀, 427명, 온라인 16개 팀(7월



사진은 지난 2019년 서빙고 농어촌선교팀 사천아웃리치.

15일 기준)이 참가한다. 한편 서빙고와 인천온누리교회에서 VR 선교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몽골, 러시아, 이라크 등지의 선교지를 체험할 수 있다. VR 선교체험관은 주일에 이용할 수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이주민 사역과 아프가니스탄의 이해’ 세미나

7월 23일 오후 3시 안산M센터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아프리카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주민 사역과 아프가니스탄의 이해’ 세미나가 7월 23일(토) 오후 3시 안산M센터(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에서 열린다. 문창선 선교사(KIMA, Feed Children 대표) ‘이주민과 하나님의 모략’, 허정훈 선교사(A-art 공동대표) ‘

아프가니스탄의 이해’, 박창홍 선교사(남양주M센터장) ‘남양주 아프가니스탄 사례발표’, 최명현 선교사(화성M센터장) ‘한국에서 무슬림 사랑하기’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국내 무슬림 이주민 사역자나 이주민과 무슬림 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없다. 문의: 010-2267-9531

남성 행복반 51기 모집

9월 4일~11월 27일 온라인(Zoom)

남성 행복반 5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남성 행복반 51기는 9월 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행복반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말씀 안에서 성숙을 이뤄가는 회복 영성훈련이다. <뒤늦게 찾아온 행복>(두란노)을 교재로 12주 동안 이어지는 회복 소그룹 모임이다. 성주명 장로(여의도공동체)가 인도한다. 회복과 성장이 필요한 20~80세 남성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인원은 선착순 15명이고, 회비는 3만 원이다. 해외 거주 신청자는 회비가 면제된다. 문의: 010-6761-4350

남대문희망공동체 찬양인도자 모집

매주 주일 오전 11시 30분~11시 50분

노숙자 및 쪽방촌 주민들과 함께 예배하는 남대문희망공동체에서 찬양인도자를 모집한다. 매주 주일 오전 11시 30분부터 50분까지 남대문희망공동체 주일예배에서 찬양

을 인도해주면 된다. 예배장소는 ISB서울빌딩 2층(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63-2)이다. 악기 연주를 못해도 무방하다. 문의: 010-8964-5275

여름사역 간증 및 사진 모집

매주 화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

온누리신문에서 성인공동체, 차세대, 대학청년부, 사역팀의 여름 아웃리치, 여름 캠프 등에서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고백한 원고와 사진을 모집한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hha0@onnuri.org)로 간증과 사진(사역 사진, 간증을 쓴 성

도 사진)을 보내면 된다. 원고량은 A4용지 1장(글자크기 10포인트) 내외다. 단체 사진보다 역동적인 사역 장면을 담은 사진이 더 좋다. 아웃리치 간증과 사진을 보낸 성도들을 추천해서 소정의 상품도 보내준다. 문의: 02-6959-0001

말씀 해설요청 및 긴급 기도제목 모집

온누리신문 ‘말씀과 기도’ 지면에 실을 말씀 해설요청과 긴급 중보기도제목을 모집하고 있다. 평소 궁금했던 말씀에 대한 해설요청과 긴급한 중보기도 제목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온누리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한다. 문의: 02-6959-0001

두란노어머니학교 7월 온라인 P.P 기도회

두란노어머니학교 7월 온라인 P.P(Power Prayer) 기도회가 열린다. 7월 18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 두란노어머니학교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다. 가정과 사역,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어머니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2182-9110

하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말라!

경배와찬양학교 및 7000학교 참가자 모집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에서 ‘경배와찬양학교 및 새 예루살렘을 향한 7000학교’, ‘어린이 7000학교’, ‘십대 7000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배와찬양학교 및 새 예루살렘을 향한 7000학교’는 7월 25일(월)부터 31일(주일)까지, ‘어린이 7000

학교’는 8월 4일(목)부터 7일(주일)까지, ‘십대 7000학교’는 8월 11일(목)부터 14일(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훈련비는 자율 헌금이다. 문의: 02-796-9700

열린다 성경 스터디투어 참가자 모집

10월 12~18일, 이스라엘 기독교 인문학 여행



까지 6박 7일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열린다 성경 스터디투어 이스라엘 편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2일(화)부터 18일(월)까지 6박 7일 이스라엘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전화(010-4902-1022)로 하면 된다. 선착순 25명 마감한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투어에서는 매일 아침 1시간 30분씩 구약성경, 사복음서, 중동전쟁사, 초기의 로마 황제, 헤롯왕조의 흥망, 유대인의 자녀교육 등을 공부하고 현장을 답사한다. 문의: 010-4902-1022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서빙고 ■ 가정사역 곽미애 김은미 백익성 나지원 이강현 고정훈 ■ 강서 윤영남 박진영 ■ 강촌 현민교 김은희 ■ 고양은평 김혜선 김미진 이하영 김중순 정선화 김수미 황성화 조경미 ■ 관악금천 이정연 문지영 이종규 이호천 정유진 장미숙	조민석 황태웅 ■ 광명 윤상영 박석재 윤종현 고영선 ■ 김포 권기찬 정준영 김미지 양형내 조유리 박상숙 조호동 이세원 ■ 노원 정미령 문춘옥 ■ 동대문중앙 김정호 권오석 노진화 최항묵 이나영 유정민 조은주 김보심 최용남 류현진	■ 동작 위재천 전홍수 정인호 신철우 표창균 ■ 마포 김종완 박희록 양문호 김정렬 장호정 신윤경 ■ 북누리 방선미 박성혜 이수남 강승훈 ■ 서대문 김은환 곽수근 ■ 서빙고 김영인 강향조 이완복 손성규 이윤진 김진영 정영화 이영희	정유진 황한나 한호석 이길수 허경희 김준희 ■ 성동광진 박주련 이지현 백진경 김승희 성영건 박정준 이정연 양선영 ■ 신용산 고성현 김진현 김경희 박희경 김제아는 김진규 조태연 박은신 황혜영 손연숙 ■ 양천 KIM ANNKA GRACE 김명희 김형태 김용덕 박 철 김태은	■ 여의도 김정숙 정제영 박인선 정제영 이자원 정제영 이준홍 정용모 ■ 영등포구로 GAYAJAM/AGMARSJEN 강민희 김나운 김장미 라인숙 이종미 윤도식 김홍집 이만호 김진균 이향영 이상임 정정숙 진선희 최광선 류지만 최성민 김중훈 탁성미 이은숙 홍경진 박광선 ■ 용산	김신일 정세욱 김형태 이태효 김홍원 박세열 이경선 김근영 임태봉 노순용 정진숙 이화순 ■ 이수 김남애 박현욱 김형정 조명규 박예진 홍정화 장경화 장영은 ■ 이촌 고은경 선우정아 리소매이 손소연 박성일 신동필 ■ 일산 김우정 임미정 김우주 강문숙 문도식 박기정	안현숙 최승연 양현철 김태훈 이선우 조수현 임상숙 강희정 ■ 중종로 김수옥 조명자 손치윤 강성두 전해정 정순영 ■ 특별한초대 정주희 최주희 ■ 한강 YIPALL CHANG 전진국 박성미 염미라 홍인화 김미자 ■ 공동체 없음 김중균 윤성호 김희전 임민희	노희정 이은숙 박철준 독고영 이예림 황혜영 임부리안 최민희 최현정 김영미 최현정 광정화 추대관 홍충표 한미정 우은정 ■ OCC 김수현 이주현 김현하 이주현 이재훈 김재건 ■ S브릿지 박진경 김지민 서희영 김승민 이선영 이승연 이종윤 김권진 하서구 김대후 ■ 길	김미현 한성희 하영호 박기일 ■ 하늘 유승희 김민숙 황지혜 선혜린 ■ CHPlus 윤천만 허오욱 이준석 김 준	임현진 김은주 ■ W ■ SNS 길유미 여의주 김리현 김혜경 김선영 김연주 김윤채 허오욱 박은지 박지영 박주란 한정화 우동렬 김다일 윤혜경 강혜령 이미리 김영숙 임예지 김민자	김민숙 김미경 이경하 유기연 ■ 김광하 장로반 김미라 김수연 김예경 김우정 김회진 나지영 남은영 정하니 조희선 ■ 윤시아 목사반 지동천 최한나 한소리 원현주 유지희 윤영준 이정민 이지혜 이현희 이효범 정하니 조희선 ■ 남장우 박민균 박양선 박영미 박정훈 백진주 오지선 유소원 이정림 이정미 이혜경 장윤희	정대영 차주영 채민정 채현정 최지은 나태경 박정원 백지훈 송유진 신기해 이기쁨 이미애 이반석	김영석 김영숙 김지은 이호찬 이훈희 장보원 정용훈 최동미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황디모데, 송예나 선교사(중동H국)

6년 전 안토니 형제가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안토니 형제가 가족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어렵게 안토니 형제를 찾아오신 아버지에게 자신의 신앙을 증거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며 부자의 인연을 끊는다고 선언하고 고향으로 떠나셨습니다. 안토니 형제가 집안의 장자이기에 가족들, 특히 동생들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돌봐야 한다는 속마음을 저에게 털어놓으며 직장을 구해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는 안토니 형제가 전도자로 교회개척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랐기에 그의 결정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가 올 거라는 생각에 안토니 형제를 축복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토니 형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21살 된 여동생이 가족들이 연결한 먼 친척과 결혼해서 마음이 너무 슬프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너무 실망스럽다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겨 기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과 ‘영혼들을 살리는 삶과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도록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삶이라는 확신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교회에서 안토니 형제를 만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개척자(pioneer)로서 무슬림 민족 가운데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살기를 권면했습니다. 또 주님의 사람으로 준비하고, 말씀 가운데 성장하기를 당부했습니다. 안토니 형제는 현재 신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토니 형제가 주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자신이 먼저 실천하며,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에스라와 같은 사역자(에스라 7:10)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올해는 저희 부부가 선교사로 출발한 지 만 30년 되는 해입니다. 1992년 봄 군대를 제대하고 그해 6월 결혼했습니다. 그해 가을 교회의 파송을 받아 선교사로서의 발을 내디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저희를 신뢰하고 기도해주시는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현장에서 뿔 수 있게 해주는 동력입니다.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큐티스쿨 수료 간증



/ 추정훈 성도(푸른누리공동체)

큐티스쿨은 ‘강의’, ‘조별 나눔’, ‘권장도서’가 훌륭하게 어우러진 과정이었다. 삼박자가 잘 갖춰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준비하고 섬겨주신 큐티스쿨 모든 사역자에게도 감사하다. 나는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있었다. 순예배에서 함께하는 큐티 나눔도 즐겁게 참여했다. 그래서인지 큐티스쿨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신자들을 위한 과정 정도라고 생각했다. 지금 하는 정도면 큐티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지인의 권유로 큐티스쿨을 수강했다. 큐티스쿨 과정이 한 주씩 진행되면서 나의 큐티가 완전히 달라졌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방법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받았다. 예전에는 본문을 스치듯 보았다면, 이제는 시간을 더 할애해서 세 차례 정독한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더욱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권장도서인 하용호 목사님의 <큐티하면 행복합니다>가 큰 울림을 주었다. 오랜 기

훌륭한 삼박자

간 큐티를 해왔지만, 아직도 경건의 모습만 있고 능력은 없는 내 모습과 대면했다. 제대로 된 큐티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큰 수확은 큐티스쿨 강의와 권장도서를 통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적용을 시작했다. 깨달은 점 대부분을 가정생활에 적용하면서 가족을 더욱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게 있다. 조별 모임에서 귀한 신앙의 선배님들을 만난 것이다. 큰 울림을 주신 분이 계신다. 나눔을 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도 그분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큐티스쿨에서 배운 내용을 저녁식사를 하면서 아내와 나눴다. 아내도 그 은혜를 누리고 싶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큐티스쿨에 신청하기로 했다. 앞으로의 삶과 가정생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대된다.

■ CDC 수료 간증



/ 박서영 자매(하늘대학부)

나는 하늘대학부에서 순장으로 섬기고 있다. 바이블아카데미 CDC(Christian Discipleship Course) 과정을 수강했다. 평소 대학청년부 리더십이면 CDC 과정을 꼭 한 번 수강하는 게 유익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명확한 목표나 기대감은 없었다. 유익한 프로그램이겠거니 하고 들었다. CDC 과정에 참여하면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은혜와 변화를 선물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몇 주에 걸쳐 CDC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은 참 축복받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1과 ‘오리지널 디자인’, 2과 3과에서 ‘죄를 사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4과의 주제였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강의마다 동일한 메시지가 들려왔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메시지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아닌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야 한다. 강의 내용이 교회에서 자주 들은 내용이라 익숙했다. 그러나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마음으로 느껴졌다. 가슴으로 진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샘솟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싶다!

다. 5과부터 8과 강의에서는 내가 어떠한 삶의 궤도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학교 공부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느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전과 꿈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CDC 강의 중에 하나님이 내게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셨다. 또 “내가 하나님께 한없는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내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하셨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복음인 만큼 그것을 전하라는 말씀도 하셨다. CDC 과정을 들으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큐티가 습관이 생긴 것이다. 큐티를 어릴 때부터 접해왔지만 매일매일 할 만큼 일상이 되지는 못했다. 큐티의 중요성도 알고, 여러 번 도전도 해보았는데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CDC 과제로 큐티일지를 작성하면서 큐티책을 매일 들고 다니게 되었고, 자연스레 매일 시간을 들여 큐티를 하게 되었다. CDC 수료를 계기로 큐티가 내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계속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 매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 순장학교 수료 간증



/ 전지윤 순장(S브릿지공동체)

순장들이 꼭 들어야 하는 강의가 있다. 순장학교다. 나는 순장학교에서 순장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웠다. 먼저, 순장과 순원의 문화가 다름을 배웠다. 만약 순장학교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타이머를 사용해서 시간 배분을 계획성 있게 해달라”는 순원의 제안을 오해했을 텐데, 순원의 합리적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또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위해서 순원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를 배웠다. 전도와 선교가 매우 중요한데 순장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순장인 내가 먼저 도전을 받았다. 순원들이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역동적인 순장에 대해서 배웠다. 처음 순장으로 섬기기에 배워야 할 게 많다. 순예배를 어떻게 하면 풍성한 나눔으로 이끄는지도 배웠다. 먼저 순장이 기도로 바로 서야 한다. 아직도 순장으로서 기도와 말씀이 부족함에 열심을 내야겠다. 특히 나눔을 할 때 순원이 주제를 벗어나면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다시 주제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해야겠다. 경청, 공감, 투명성, 격려, 배려의 중요성도 알게

더 나은 순, 더 행복한 순, 더 성숙한 순

되었다. 경청이 가장 힘들지만, 순원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의도를 잘 파악해야겠다. 무엇보다 순원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격려해야겠다. 순원들이 자신의 은사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무엇보다 인내심을 가져야겠다. 순원 돌봄에 대해서도 배웠다. 솔직하게 소통해야 순원들이 마음을 열게 된다. 순원들이 마음의 벽을 쌓지 않도록 돌봐야겠다. 내가 소진되지 않도록 나를 적절히 돌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할 필요성도 알게 되었다. 순장인 나는 내려놓고, 주님이 순을 이끌어 가실 때 나눔이 풍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다. 순예배는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순장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순장이 먼저 전도의 모범을 보여야 순원들도 가정과 직장에서 전도한다. 순원들이 자신의 문제에 몰입하지 않고 열방의 기도자로 서기를 기도한다. 배운 내용을 마음에 잘 새겨서 더 나은 순, 더 행복한 순, 더 성숙한 순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선교칼럼

모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김다비드 선교사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직전에 정부의 철수 명령에 따라 불가리아에 잠시 머물다가 난민들이 국경을 넘는 것을 보고 루마니아 북쪽 국경도시 수체아바로 갔다. 노인과 여성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국경을 넘고 있었다. 난민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답답함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일단 난민센터에서 통역을 돕는 일부터 시작했다.

루마니아 교인들은 난민을 사랑으로 대한다. 휴가를 쓰고 비행기를 타고 오가며 난민들을 섬긴다. 그 모습에 감동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교회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축복했다. 그랬더니 난민센터를 섬기는 형제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미 복을 받았습시다. 난민을 섬기면서 믿음이 달라지고 교회가 새로워졌습시다.”

루마니아에서 무비자로 지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비자를 갱신할 겸 국내에 들어왔다. 여러 교회와 선교단체들을 다니면서 내가 현장에서 경험한 은혜와 슬픔을 나누는데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한국 교회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오해하고 있었다. 그 실상을 제대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다른 곳도 아닌 교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질서가 개편되면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짜장면값, 기름값이 너무 올랐다”면서 “우크라이나는 왜 휴전을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느냐?”고 했다. 우크라이나는 살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전쟁이 발발하고 100일 동안 1,200만 명이

난민이 되었다. 자그마치 680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났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기 위해 220만 명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 우크라이나 키우이에 있는 우리 교회가 부차와 멀리 떨어진데 그곳에 니콜라이와 나타샤 부부가 있다. 3월 초까지 그들 부부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러시아군이 부차를 점령하고 연락이 끊겼다. 매일 연락을 시도했는데 연결되지 않았다. 인터넷에 죽은 사람 사진이 올라오면 가슴을 졸였다. 부차에서 민간인 600명 이상 학살당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엄밀히 말하면 나는 교인을 전쟁터에 두고 떠난 선교사이자 목사다. 무엇을 해도 마음이 무거웠다. 지난 4월 초 니콜라이 성도에게 메시지가 왔다.

“목사님, 살아있고 안전합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지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니콜라이 집사님을 통해 부차에 의약품, 휴대용가스버너, 가스통, 발전기를 보냈다. 체르노빌 인근 3개 마을도 지원했다. 오늘도 니콜라이 집사님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이웃들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니콜라이 집사님을 지켜주신 것이라 믿고 기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실성한 주민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러시아 군인들이 겪는 전쟁 트라우마도 심각하다. 이번 전쟁이 양국에 남긴 상처는 세대가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을 도와야 한다. 아낌없이 후원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NGO 더멋진세상 임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전쟁을 멈춰 주시고, 저 땅의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회·연주회
7월 22일 오후 8시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

권사칼럼

사랑, 그 오묘한 신비

조은미 권사
(강동온누리교회)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박성천 목사님과 남양주온누리교회 제1기 예수제자학교 훈련에서 인연이 났다. 그 인연이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목사님은 예수제자학교를 졸업한 지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경조사에 늘 마음을 써주신다. 남편이 병석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그 바쁜 와중에도 문병 오셔서 기도해주시고, 남편을 하늘나라 보냈을 때도 새벽같이 틈을 내어 한달음에 달려오셔서 위로해주셨던 사랑을 오래 잊지 못한다. 아들 결혼식 때는 새로 장만하신 성찬기로 가장 먼저 집례를 해주셨다. 언제나 사랑의 화신처럼 웃음이 떠나지 않으며 겸손하시고, 자애로운 성품을 보면 연배는 어리지만, 사랑과 존경이 절로 솟는다.

박 목사님이 얼마 전부터 불우한 처지의 여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생리대를 사서 보내는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했다. 깊은 감동이 와 매월 적은 금액의 헌금으로 동참하고 있다. 어느새 ‘way maker’라는 이름으로 불우한 청소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소외된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사랑과 꿈을 전해주는 사역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간 헌금해준 후원자들에게 감사하며 방짜 수저 한 벌을 선물로 보내주셨다. 너무 귀한 선물이라 쓰지도 못하고 모셔두었는데 오늘 문득 그 수저를 꺼내 보며 삼시 세끼 밥 먹을 때마다 기억하고 기도하는 뜻으로 보내신 선물이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다. 수저를 꺼내 밥을 떠먹으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곱씹어 보게 되었다.

한 달에 한 번 빼죽 헌금 보내는 것만으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깨닫고 송구한 마음이 든다. 사랑이 없는 구제가 억만금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례적인 체면치레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늘 가슴 안에 품고 기도하며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자세일 것이다.

우리는 때로 가치 전도의 어리석은 실수를 상식처럼 비밀비재하게 저지르며 살아간다. 삶에서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 혼자만 잘 먹고 편안하게 살다 가기 위해 그 수고를 하며 애를 쓰고 사는가? 그것이 내가 사는 유일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삶이 얼마나 덧없고 무의미한가? 수저는 두고 보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밥을 떠먹으라고 만들어진 물건이다. 목적에 맞게 쓰임 받을 때 수저로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것 아닐까? 나도 분명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 세상에 보람을 받았으리라. 태어난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보람 있게 사는 삶일 것이다. 그것을 위해 주신 재능이 있다면 묻어 두지 말고 나누어 쓸 때 더 빛이 날 것이다.

블로그나 SNS를 통해 내 글을 읽는 독자가 매일 족히 300명이 넘는다. 이것이 내게 주신 재능이라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좋은 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싶다. 내 글이 희망을 잃고 지친 삶을 사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며 사는 삶은 나도 행복하지만 더불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는 최고의 비결이다. 가까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며 사랑을 나누고, 힘을 주는 하루하루를 만들며 살아가도록 노력하자. 사랑함으로 오늘도 행복한 날을 만들어 가자. 사랑하고 있다는 작은 몸짓의 표현이 지쳐있는 누군가를 세우는 힘이 될 것이다. 사랑, 그 오묘한 신비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앙에세이

이비오 목사
(양천공동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고전 15:51).

지난 6월 8일, 여느 때와 같이 아침에 일어나 찬양하고 큐티 책을 폈다. 그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님께서 내 귀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이시는 것 같았다.

“비오야, 내가 비밀 하나 이야기해 줄게.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될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변화되어 영원히 살

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과를 모두 마치고 밤이 되었을 때 아침에 묵상한 큐티 본문을 가지고 다시 묵상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나와 아침에 한 대화를 다시 이어가기 시작하셨다.

“비오야, 내가 비밀을 이야기해 줄게.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될 거야.”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네, 주님. 우리는 죽지 않고 변화되어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성령님의 대화가 요한복음 11장의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연상시킨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요 11:23-24).

예수님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당장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먼 훗날 부활

때에 살 것이라는 말로 알아들었다. 나도 마찬가지로 들었다. 성령님은 “지금 네가 죽지 않고 변화될 거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죽지 않고 변화되겠지요”라고 이해했다. 예전 경험이 떠올랐다. 나는 7학년(중1) 때부터 독일학교에 다녔다. 한국말밖에 못 하던 나에게 독일말은 너무 어려웠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반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나는 매일 밤 울면서 부모님께 한국에 다시 돌아가자고 졸랐다. 성령님이 그때 상황을 떠오르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오야, 그때 너는 외국말을 할 수 없었고, 외국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 너의 입과 귀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단다. 하지만 네가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너의 입과 귀는 죽지 않고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죽지 않고 변화된 너의 입과 귀를 통해서 많은 언어로 복음을 듣고 전하게 되지 않았니? ‘우리는 죽지 않고 변화된다

’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지금도 네 삶에서 이뤄지고 있단다.”

그렇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죽지 않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고후 3:18).

마지막 때에도 우리는 죽지 않고 변화되어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요일 3:2b).

죽지 않고 변화되는 것은 삶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조문숙 선교사의 고난과 역경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7월 16일 에어엠블런스로 한국 도착

뇌출혈로 투병 중인 조문숙 선교사(분당A 공동체, 탄자니아, 69세)를 위해 온누리교회 가다 함께 기도해야 한다.

조문숙 선교사에게 지난 6월 8일 뇌출혈이 발생했다. 그 이튿날 탄자니아의 대도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광범위한 뇌출혈과 심한 뇌압 및 뇌손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장장 5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비교적 잘 끝났는데 뇌부종을 안정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두개골을 열어놓은 상황이다.

조문숙 선교사는 다행히 지난달 22일 자가 호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회복되었다.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자극에 반응하는 등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 온누리교회와 두란노해외선교회(TIM)에서는 조문숙 선교사의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 에어엠블런스로 한국으로 후송했다. 조문숙 선교사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문숙 선교사의 둘째 아들 박승홍 전도사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어머니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어머니가 한국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고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조문숙 선교사의 또 다른 이름 ‘비비 네마’(은혜의 할머니)

조문숙 선교사는 열여덟 꽃다운 나이에 아프리카의 현실을 담은 다큐멘타리를 보고 “내가 선교사가 되어 저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다. 조문숙 선교사는 평생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훈련받으며 살았다.

조문숙 선교사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2003년 온누리교회에 출세했다. 조문숙 선교사는 매일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남편을 떠나보낸 아픔을 회복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은 와이미션과 안산M센터를 섬기면서

구체화했다. 조문숙 선교사는 교회와 선교사역을 헌신적으로 섬기다 2016년 64살에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조문숙 선교사는 1,000여년 동안 무슬림 지역이었던 아프리카 탄자니아 동남부 해안을 복음화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특히 무슬림종족인 ‘은덴게레코종족복음화’에 헌신하고 있다. 2025년까지 이퀴리리마을을 거점으로 주변 도시에 13개 교회 개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문숙 선교사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겠다”는 하나님과 한 약속 그대로 현지인들의 엄마이자 할머니가 되었다. 조문숙 선교사는 탄자니아 이퀴리리지역에서 선

교 활동을 했는데 그곳은 차로 이동하는 게 어려울 정도의 오지다. 그곳에서 조문숙 선교사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현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이퀴리리마을 주민들은 조문숙 선교사를 ‘비비 네마’(은혜의 할머니)라고 부른다.

조문숙 선교사는 지금까지 탄자니아에서 교회 개척 4개, 교회 건축 4곳, 청년양육센터 건축 1곳, 초등학교 건축 1곳, 우물 13군데, 중학교 종교 수업 1곳, 신학교 지원 4명, 양육 청년 7명 등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무엇보다 조문숙 선교사는 현지인들과 같은 모습, 같은 음식, 같은 언어를 쓰면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현지인들의 마음을 얻어 무슬림마을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는 기적 같은 일을 이뤄냈다. 현지인들은 병상에 누워있는 조문숙 선교사를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조문숙 선교사의 안부를 묻는 전화가 오고 있다.

조문숙 선교사가 병상에서 훌쩍 털고 일어나 현지인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게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하다. 조문숙 선교사가 하루빨리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진심 어린 중보기도가 꼭 필요하다.

문의: 070-4464-8111

세상의 소금과 빛 ‘온누리복지재단’

쪽방 주민 돕는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



김갑록 소장 (서울특별시립 서울역 쪽방상담소)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이하 서울역쪽방상담소)는 2018년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복지전문 기관이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

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마 18:10)는 성경 말씀에 순종해 생활이 어려운 쪽방촌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쪽방은 도심에 자리 잡은 도시 빈곤의 한 형태이다. 주로 집창촌 정비 지역에 있는데, 방의 크기가 성인 한 사람이 잠만 잘 수 있을 정도로 작다. 별도의 욕실이나 부엌과 같은 편의 시설이 없고, 층별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쪽방 거주자는 대체로 불안정하고, 이동성이 강

한 직업을 갖고 있다. 가정을 구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대부분 소득이 낮은 최빈곤층이다. 방세는 대개 일세나 무보증 월세로 19~35만원 선이다. 대부분 1인 가구이고, 노숙 이력이 있는 주민 비율이 높다.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음주와 흡연, 결핵, 당뇨 등 다양한 질병을 갖고 있다. 이혼, 사별, 사업 실패와 가족과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주민이 대다수다.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 관리하는 쪽방은 동자동, 갈월동, 후암동 일대 65개 쪽방 건물(쪽방 수 1,267실)이다. 현재 890명(기초생활 수급자 478명, 65세 독거노인 308명, 장애인 88명, 기타 16명)이 쪽방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역쪽방상담소는 쪽방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복지체제 연계를 통한 자립 지원 강화를 목표로 수급자 지정 지원 등의 행정지원, 심리상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사례 관리, 의료지원, 물품 지원, 주거 지원, 교양 및 취미 여가 프로그램, 기초편의시설(공동 샤워실, 세탁실 등) 등을 추진 및 운영하고 있다.

쪽방 주민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가족과 단절됐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존감이 낮고, 사회성이 떨어지고, 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크고,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사회적 참여와 자립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적은 수의 직원으로 쪽방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다행인 것은 부족한 부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온누리교회와 온누리복지재단의 도움이 참으로 크다. 쪽방 주민들을 돕고 섬기는 공동체인 ‘서울역희망공동체(사회선교부 소속)’에서는 후원품 및 노력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역희망공동체 봉사자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생활이 어려운 쪽방 주민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고 있다. 영어예배팀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보태고 있다. 다양한 나라 성도님들이 열악한 쪽방을 방문해서 주민들에게 생수를 나눠주고, 청결하지 못한 쪽방을 청소해주신다. 서로 교제

도 하고 중보기도도 한다. 또 온누리교회에서는 매년 앤젤트리를 통해서 쪽방 주민들에게 맞춤 선물을 주고 있다. 쪽방 주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하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실 거라 확신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동안 봉사를 할 수 없었던 지난 2년 반이 정말 길었다. 쪽방 주민들이 “왜 온누리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안 오냐”며 안부를 묻는다. 쪽방 주민들이 온누리교회 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기도의 동역자, 말씀의 동역자, 함께 행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꺼져가는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힘을 것이다. 쪽방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더 많은 손길이 모이기를 기대하고 기도한다.

문의: 02-3789-5119

서빙고 02.793.9686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Zoom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Youtube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쉼터, Zoom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Zoom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Zoom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Facebook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Youtube, Facebook / 네 팔어 주일 10:00 Peace 303, Zoom / 캄보디아어 주 일 11:00 Peace 302, Facebook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Zoom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Zoom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Youtube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Youtube, Zoom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Facebook, Youtube, Zoom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방 주일 11:00 Startree, Zoom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Zoom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Zoom / 다문화 대청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 협동조합, Zoom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Youtube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 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Youtube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Zoom / 러시아어 14:00 703호, Facebook / 미얀마어 14:00 706호, Zoom / 파워웨이브 14:00 705호, Zoom / 꿈방 11:00 705호, Zoom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Zoom / 네팔어 11:00 2 센터 202호, Zoom, Facebook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Zoom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Zoom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 세대에배실, Zoom(14:00) / 열방청년예배 13:30 4 층 OGA, Zoom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 일 19:30 301호, Zoom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messenger group, Facebook, Zoom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 시간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이희인 집사(010-3706-5974) 평택온누리M센터 차세대 교사 모집 예배 및 소그룹: 11:00~13:30 대상: 초등 4학년~중학생 위치: 1호선 평택역 2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 문의: 김연경 선교사(010-3299-1712) 평택온누리M센터 O.G.A. 봉사자 모집 대상: 초, 중, 고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중도입국 청소년 모집: 한국어, 미술, 악기, 미술치료, 음악치 료 수업 시간: 오전 10:00~12:00, 오후 1:00~3:00 / 화~금(주 1~2회 수업) 문의: 김연경 선교사(010-3299-1712) 내척치유학교 일정: 7월 22일~30일 매주 금,토 시간: 오후 3시~9시 장소: 온라인 신청: 아이스쿨(회비 6만 원) 문의: 010-6330-7634 초등학생을 위한 온라인 QT 세미나 'Small Change' 일정: 8월 13일, 20일 시간: 10:00~12:30(2주 과정) 강사: 하신주 선교사, 홍은경 목사, 전 휘경 집사 회비: 3만 원 접수: www.into7.net(8월 5일까지) 문의: 한순례 전도사(010-9291-8384)	양 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문의: 김효성 팀장(010-4711-1183)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ú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팡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팡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드림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방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모임 대상: 공동체 참여가 어려운 온누리 교회 성도 신청: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문의: 02-3215-3214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문의: 010-9927-4224 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지부 162기 지원자 모집 일시: 8월 6일~9월 3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30분 ※9월 3일 5주 차 수료예식(양재온누 리교회 화평홀) 강의: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교육 접수: www.father.or.kr, 아이스쿨 문의: 02-2182-9150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	--	---	--	---

부 천 032.322.9686	수 원 031.895.6500	대 전 042.825.3642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 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후 2:00 예꿈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드림씨드,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열린새신자예배 2: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기도회 매주 수 오후 8:0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초1~2) 9:00, 11:30 사 랑홀 / 초등부(초3~4) 9:00, 11:30 경찬홀 / 소년부(초5~6)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 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차세대 오전 11:30 믿음홀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 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6부 19:00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 아부 11:30 9:00, 11:30 사랑홀 / 유년부(초1~2) 9:00,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팡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 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 (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 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 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홀 / 중등 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평 택 031.651.9680	인 천 032.437.9686	강 동 02.475.9686	양 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10:30 2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 3부(영어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14:20 3층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 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 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의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11:20 영상예배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주중예배 수요여성예배 10: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 (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의예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야심야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5:20 시안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일본
- 동경
 -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 Higasisinsai
Chuoku Osaka Japan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ie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아스네만
◆협동목사

강기석	강명재	강의선
강찬석	구재영	권득한
권용성	권철준	김경선
김관근	김광동	김광선
김남열	김명종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경하	김관식	김광하
김기성	김기영	김남식
김동업	김두진	김남순
김병현	김명훈	김문갑
김보순	김병국	김상집
김선조	김성균	김성종
김성철	김성훈	김신원
김영환A	김영록	김영록
김영환B	김영환B	김영환
김용호	김우호	김 원
김진서	김장영	김재욱
김정민	김정훈	김종완
김준규	김준영	김종웅
김지현	김지훈	김창식
김철주	김태경	김해기
김형경	김형식	김해준
김화서	김화수	김효구
나광욱	나 영	나영욱
남상길	남상욱	남윤창
남주연	노기훈	노하성
류기만	명영찬	문석찬
문현구	민준기	박구병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영근	박병률	박성규
박승길	박승우	박성구
박영환	박우형	박일규
박일환	박우현	박종현
박지안	박혜한	박현규
박용균	박홍선	방찬중
배승호	배희진	백성원
서명수	서병호	서성렬
성광재	성주명	손기철
손태호	송두환	송준환
신동기	신수환	신호진
신철우	신하철	신한승
신효수	심하돈	신안혁
양상식	양 웅	양준홍
양종훈	양오명	오보급
오성훈	오성탁	오이식
우승구	원종호	유병진
유재홍	유 형	윤석서
유승주	윤영자	윤현덕
이경원	이광순	이규현
이길수	이남식	이동규
이백용	이병국	이병의
이상울	이상준	이석일
이승배	이영근	이영복
이우경	이은일	이인용
이재춘	이정구	이정근
이종우	이종철	이진택

◆성가사

간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해
간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간세일	김은혜	김경준	김정환
간지형	김혜경	김영준	김희철
윤창장	문보라	박은혜	박용구
박경진	손창우	송정희	신수환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진
윤은희	유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수정	이성진	이세대
이수연	이혜경	임신준	조희환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환
최경일	최영은	최유석	최지환
홍영식	최재영	최해경	최훈

김기홍 김도일
 김인숙 김성연
 김진우 김재형
 남진우 노경호
 박수환 박종훈
 배성우 변범섭
 손미경 신기원
 엄영기 유윤상
 이미령 이성은
 이주영 이정주
 장이자 장재홍
 정동윤 정용환
 최철용 허민
 홍정

Joel Kim Joe Lee Micha

◆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갑삼
김연수	김요셉	김명훈
윤한돈	인정식	김종수
정수환	최태화	임환식
		오명진
		최승호
		최태영
주교명		
◆ 성가사		
고양석	김성수	김수정
김재철	김진용	김홍규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송희경	연지영	여훈필
유기태	이정민	이정우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7/11(월) 마포장희나성도부친상 고장철호

서초구립느티나무쉼터 SSN 4기 '5070 시니어 PD 모집'
 내용: 서초 시니어 느티방송곡(SSN)에서 활동하실 분을
 선발하여, 무료 교육을 통해 시니어 PD로 양성
 문의: 김유경 사회복지사(02-6953-7134)

서빙고 은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임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이혼,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이타심 독촉 상담

양재 은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지동문 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CGNTV 정규직 채용

1. 모집: 커뮤니케이션실 후원커뮤니케이션팀(2명)
업무: 후원관리, 서포터즈 네트워크 관리
자격: 사무경력 1년 이상, 오피스(한글,MS) 사용가능자

2. 모집: 디자인센터 디자인팀(1명)
업무: 사진 자막, 로고 디자인, 중계자막지원
자격: 학력무관, 경력 2년 이상

우대: 포토샵 및 일러스트 능숙자, 프로프리젠토 사용자,

3. 모집: 콘텐츠플랫폼기획실 플랫폼기획팀(1명)
업무 : AWS클라우드기반 인프라설계 및 구축, OTT서비스
시스템 구축/운영, OTT서비스 앱,웹 형상관리, 개발/유지
보수 및 관리, DB 운영 및 로직 설계, 콘텐츠관리시스템 관
리 및 운영
자격: 학력, 경력무관

우대: 앱/웹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는 자, 클라
우드 시스템 설계 및 운영 업무 경험자, 앱/웹 서비스 설계
및 운영 업무 경험자

4. 모집: 제작기술실 송출팀(3명)
업무: 송출근무
자격: 주야 교대근무 가능자, 학력, 경력무관

참조: <http://about.cgntv.net/recruit/notification.cgn>
문의: 02-3275-9214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가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설치율을 사용합니다.

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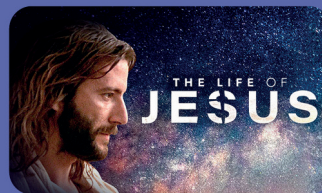
크리스천 필수앱 '포당'과 함께
은혜의 바다에 풍당!

◦ 수련회, 아웃리치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해보세요.



| 선오브갓 |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 라이프 오브 지저스 |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사역을
생동감 있게 그린 영화

◦ 스승과 제자의 특별한 우정을 통해 감동을 경험해보세요.



| 조나단 스페리의 비밀 |

즐거운 여름을 기대하는 12살
아이들이 교회에서 만난 75살
노인 조나단 스페리의 잔디를
깎아주면서 씩씩 우정 이야기



| 퍼펙트 레이스 |

전국 달리기 대회에서 큰 격차
를 극복하고 우승하기 위해 노
력하는 도널리 감독과 학생의
감동스토리

◦ 기독교 법정 영화를 통해 특별한 재미를 느껴보세요.



| 마운틴 탑 |

변호사 출신의 목사에게 한 남
자가 찾아와 변호를 맡리게 되
는데... 사건을 풀어가면서 잊
고 있던 변호사의 소명도 찾아
가는 이야기



| 신은 죽지 않았다2 |

역사교재 위인에 예수님이 빠
진 것에 의구심을 갖은 학생
과 말씀을 인용해 대답한 교
사가 민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벌어진 일



모두 '포당' 앱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CGNTV 정기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